

(4)



오성화 선생

오성화 선생은 1906년 7월 2일에 중국 동만주 연변군 학포동에서, 빈농민 가정에서 탄생하시었다. 선생이 7세 되던 해에 양친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다. 선생은 12세 때에 제정 러시아, 원동지방 끝사꿈까논, 북이론 구역에 살고 있는 형을 찾아 오게 되었다. 선생은 1924년까지 형의 덕택으로 공부하게 되어 초등을 다감한 다음 정제적 곤란에 의하여 1924년 부터 1928년까지는 울라리위스도크 시에서 화물차 짐을 실어주는 노동자로 일하시었다. 선생은 1923년에 레닌 공병회에, 도는 1928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업당하시었다. 선생은 좋은 노동정력라 공산당의 특선에 따라 1928년 부터 1930년까지 울라리위스도크 시 당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며, 그 학교를 다감한 다음에 빈 끝사꿈까논에서 도서관 주임으로 일하시었다. 도서관 주임으로 일년간 일하신 다음 1931년 부터 또

일년간은 위로실로브시 공성증맹 농촌정리 및 협동조합 지도부 부장으로 일하시었다. 오선생은 1932년 부터 1935년까지, 4년 동안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공부하시였으며, 그 대학을 필한 다음에는 가라흐 공화국, 알라타 주 앙드레예와 군당 선동선전부 부장으로 일하시였다.

1937년 - 1938년 2년 동안은 알라타 시 약산-리에 노 루머 대학에서 오선생은 공부하시였으며, 그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가라흐 공화국 깡술올다 주당위원회 책임 강사로 1941년까지 영입하시였다.

1941년에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개시 됨과 함께 오선생은 소련군에 초몰리여 1945년까지 원동지방 전선 정치국 지도원으로 일하시였다.

오선생은 1945년 초에 병으로 원하여 소련군대에서 제대하여 다시 가라흐현에 돌아와 "노위리르" 병영 협동조합 당조직원으로 1948년 초까지 일하시였다.

오성화 선생은 1948년 초에 소련공산당의 화견에 의하여 조선 인민주의 연변 공화국에 화견하여 중앙성 부 문화선전성 부장으로 일하시였다. 1949년 중남부 허 1951년 초순까지 평남 조종당 중앙위원회 부회 장으로 일하시였고, 1951년 부터 1952년 중순까지 조선인민군 제 1군단 군사위원으로 계셨으며 1952년 8월 부터 1953년 2월 까지 조선인민군 김책 정치국관장과 교장으로 계셨으며, 1953년 4월 부터 1955년 9월까지 북한정 부 교흥성 해안 관리국장으로서 일하시였다.

오성생은 1955년-1959년 말까지 공화국 중앙 국가
중재 재판소 부소장으로 일하시다가 1960년 8월
에 소련으로 귀환하였다.

오성화 선생은 이 당시에 원기성대하시고 나이
나 이 54세에 인간 생활과 사업경험이 풍부하
신 준비된 지도 간부로써, 또 그렇게도 겸손하시
고 욕심으로 내걸고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투
쟁하셨으나 조국의 흥일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조국을 등지고 다시 소련 땅에 귀환하게 된 것은
다만 당시 북한이 독재주의, 반민주주의 정책이었
기 때문이다. 오성화 선생도 다른, 소련에서 퇴권되
어 나간 전체 공무들과 같이 한가지로, 소련 공화국
의, 소련 가족주의, 관료주의 간판으로 죄목을 시워왔
으며, 그 외에 흠이하게 참복한 것은 오성생이 김백정씨
군관학교 교장으로 모항산에서 일하시던 1953년
2월에 비행공기등어 정칙군관학교를 조직하여 많
은 학생자를 내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성생의
고위직 위반에 의한 죄로 아닌, 누구도 그 직책에 있
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은 겪어본 것은 명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생은 교장 직무에서 철권되어
해운 관타국에 전근 되었으나 많은 정신적, 도덕적
주변성을 받게 하였으므로 불구하고, 부연이 지난이후

다시 사상 검도사업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내걸고 본선
 사업에서 철저히 농촌에 권을 씌어, 아래에 내려가
 재고양 받고 오라고 했어였다. 그러나 그 당시 철저히
 농촌에 재고양 내려간사탕치고 누구나 한사람도
 시 평양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로 없었다. 어찌한형
 평에서 가족을 데리고 농촌에 정배사탕으로 간다는 문
 제는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평등고 함은 떠난다는
 문제는 눈물과 한숨이 적은 어려운 문제였으나, 힘이나
 세월이 바르잖으면 고함에는 다시 찾아 온다는 문제로
 이쪽 반의-노련 땅으로 다시 걸음 걸기를 결심하였
 던 것이다.

오선화 선생은 1960년 7월에 노련에 귀환되
 어 노련공산당 중앙 위원회 조직부에 도착하여 분
 건부속을 밝힌 후 가지 선착 등지로 살고 있는 알짜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오선화 선생은 1961년에, 55세 되던 해에 오선생이
 국가 앞에 어록한 특별공훈에 의하여 공화국 영웅,
 특별 연공생으로 결정 받고 그 어록 자식들과 함께
 매우 행복하게 15년간 앓으시다가 1976
 년 9월 3일에 별세하시었다.

1999년 9. 20.